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 안에 각종 이방 신상이나 이방 신의 제단을 가져다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BC 586년 경에 있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방 군대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벽을 무너뜨렸고 또한 그 안에 살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쳐 장례를 치러주지도 못하여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시체들은 새와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아!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구나! 아!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였구나!라며 성경을 보았었지만 그 실상은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멸망하였을까요? 조금 전 1절에서도 말씀하였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오늘 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름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왕하 17:7-8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왜 그들이 패망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유다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범죄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 신들을 섬겼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말은 이미 예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신 6:14-15에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곳 사람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여인들의 꾀임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점을 치는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결국에 이 일은 사울이 죽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여로보암은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는데 이 일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게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1:11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80:19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 잘 듣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